

화답송  
연중제32주일

시편 63(62), 2.3-4.5-6.8-9(2c)

유영철베드로작 곡

주 - 님    저의 하느님    제 영혼당신을    목말라 하나 이 다.

하느님, 당신은 저의 하    느님,    저는 새벽부터    제 영혼  
당신을 찾나이다,당신을    목말라 하나 이 다.

당신 의 권능과    영광을 보    려 고,    성 소에서 당신을    바라 보나    이 다.

이 령 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 하고,    당신 이름 부르며    두손 높이 올리 오    리 다.

정 녕 당신을 도우셨    으니,    당신 날개 그늘에서    환호 하나    이 다.

물 기 없 이 마르고 메    마 른 땅에 서,    의 몸은 당신을 애타게    그 리 나 이 다.

당신 자 애가 생명    보 다 낫 기에,    제 입 술 이 당신을 찬    미 하 나 이 다.

제 영 혼 이 기름진 음식    으 로 배 불 러,    제 입 술 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    양 하 나 이 다.

제 영 혼 당신께    매 달 리 오 면,    당신 오 른 손이 저를    불 드 나 이 다.